

kiri Weekly

2014.12.22 제313호

이슈

중국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혁(C-ROSS) 영향과 전망

포커스

Aviva 보험회사의 합병 발표 및 시사점

글로벌 이슈

2015년 중국 경제성장전망 및 경제정책방향과 시사점

영국 연금시장 소비자 조사 결과 및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중국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혁 (C-ROSS) 영향과 전망

김해식 연구위원, 이경아 연구원

요약

- 중국 보험산업은 대내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경제성장률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맞는 지급여력제도 도입이라는 압력에 직면하여 2014년 재무건전성규제 개혁안(C-ROSS: 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을 발표함.
 - 2012년 이후 중국 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이 8% 이하의 한 자릿수로 하락했으며, 더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이 어려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산업구조 재편이 논의 중임.
 - 2011년 IMF는 중국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자본력이 빈약함을 지적하고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C-ROSS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이면서 신흥시장인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단일 감독제도를 표방하고 있음.
 - 중국은 부족한 감독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간 규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 전역의 모든 보험회사에 C-ROSS를 적용하기로 함.
 - 자본 확충이 보험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보험시장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C-ROSS는 자본 확충보다 위험관리를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를 강조함.
- C-ROSS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며, 제도 정착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임.
 -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나,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과 보유 자본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하여 자본 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 그러나 감독자원을 포함한 보험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C-ROSS가 빠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C-ROSS는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보험회사의 자산 및 상품구성의 변화를 초래할 것임.
 - 시장진입 활성화와 함께 자본부담이 큰 보험회사의 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 또한, 상품 및 자산구성에서는 보장성 상품이 늘어나고 안전자산 비중도 늘어날 것임.

1. 검토배경



-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하락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촉을 재건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함.
 - 중국은 2012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8% 이하에 머무르면서,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이 어려운 새로운 국면(新常态)에 들어섰다고 평가
 -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의 투자의존형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¹⁾

- 중국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산업재편 요구와 국제감독기준 준수 압력에 직면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수립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재무건전성규제 개혁안(C-ROSS: 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을 발표함.
 - 중국 보험산업에서는 외형 위주 성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체질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개혁 추진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여 재무건전성규제 강화 필요성도 높아짐.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평가를 통해 중기개혁과제로서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규제를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건전성규제 개혁을 추진하게 됨.

- 본고는 중국 보험산업의 환경 변화 맥락에서 C-ROSS가 담고 있는 자본규제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장·단기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중국 보험산업은 안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고, 밖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건전성규제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
 - 유럽 Solvency II나 미국 RBC에서 관찰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 중국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 맥락에서 C-ROSS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한국은행(2014), 『주요 신흥국의 구조개혁과제와 정책대응』, 국제경제리뷰, 2014-29.

2. 중국 보험산업 현황



가. 보험료 규모 세계 4위의 보험시장

- 지난 10년간 연평균 15.4%의 명목 GDP 성장률에 힘입어 중국 보험시장은 연평균 19%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4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함.
- 2013년 기준 중국 보험산업의 자산 규모는 8.3조 위안이고 보험료 규모는 1.7조 위안임.²⁾

〈그림 1〉 보험료 규모 및 보험회사 수 추이



자료: Wu, L.(2014), "The C-ROSS Solvency System and Actuarial Valuation in China", EAAC, Taipei Taiwan.

- 전체 보험회사 수는 168개사로 한 해 평균 10개사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모두에서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CR3)이 50%를 넘고 있음.
- 2013년 기준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 53.7%, 손해보험 64.8%임.
-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 수는 전체의 30%를 차지하지만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 5.6%, 손해보험 1.3%에 불과함.³⁾

2) 보험료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 5위, 손해보험 3위 규모. Swiss Re(2014), "World Insurance in 2013: Steering Towards Recovery", Sigma, 3/2014.

3) Dagon Europe Credit Rating(2014), "China's Insurance Market Overview: Characteristics, Trends, Challenges

나. 열악한 수익성과 지급능력 개선 필요성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분 없이 지난 10년 간 대다수 보험회사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당기순익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⁴⁾
 - 상위사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형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시장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사의 경우 수익성은 양호한 편이나, 빠른 매출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자본이 충분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

〈표 1〉 중국 보험회사의 규모별 경영성과(2009)

구분		영업ROA	합산비율	ROE
생명보험	상위 10개사	6.3%		18.4%
	차상위 10개사	-1.1%		-11.4%
	나머지	-2.6%		-11.4%
손해보험 (전업사 제외)	상위 10개사		101.7%	11.4%
	차상위 10개사		117.7%	-5.9%
	나머지		122.0%	-5.3%

주: 영업ROA = 영업이익 / 기중자산

자료: IMF(2011),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11/321에서 재인용.

- 중국 보험감독위원회(CIRC: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는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을 위해 보험료, 자산운용,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개혁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중국 보험시장에서는 현재 자동차보험료 단일요율(tariffs)을 포함한 가격규제와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시장 진입통로를 제공하는 개혁조치가 제시되고 있음.
 - 그동안 손해보험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50% 투자 상한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
 - 최근 인수합병 개혁안을 통해 동일 종목 내 복수 보험회사 소유를 허용하고,⁵⁾ 상하이 자유무역

and Opportunities for Foreign Insurers".

4) IMF(2011),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11/321.

5) 이소양(2014), 「중국의 보험회사 M&A 규제완화 및 시사점」, 글로벌이슈, 281, 보험연구원.

지대에서는 건강보험에 100% 지분투자를 허용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용인함과 동시에 부실한 보험회사의 퇴출 통로를 마련함.

- 다른 한편으로 CIRC는 보험료, 자산운용, 시장진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재무건전성규제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

다. 보험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

■ 대외적으로 중국 보험산업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규제가 국제기준이 권고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와 비교하여 단순한 위험반영과 재량적 감독에 대한 개선 요구에 직면⁶⁾

- 2011년 IMF는 중국 보험산업에 대해 단기 개선과제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제도, 중기 개선과제로서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의 개선을 제시함.
- 현재 중국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선순위채권자보다 후순위여서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다른 한편으로, 지급여력비율 10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가 영업을 지속하는 현상이 흔하게 관찰되고 있고, 규제 해석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감독도 포괄적이어서 규제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대내적으로 중국 경제는 과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경제성장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뉴노멀에 진입하면서 중국 정부는 보험산업에도 자본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음.⁷⁾

- 2012년 이후 한 자릿수 실질 GDP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처럼 외부요인이나 정책 대응 실패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성장잠재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성장 촉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 속도 둔화도 불가피하여 보험료 성장에 기대던 양적 성장에 가려져 있던 열악한 수익성과 부족한 자본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할 것임.

6) IMF(2011) 전계서.

7) 이철용(2014), 『신창타이 중국경제』,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3. 제2세대 재무건전성규제 개혁: C-ROSS



가. 전국 단일의 중국식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 CIRC는 2014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C-ROSS 세부 시행안을 발표함.

- IMF 평가 직후인 2012년 CIRC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제시한 국제보험감독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을 반영하는 지급여력제도 개혁프로젝트(C-ROSS)를 추진
- 2013년 CIRC는 ① 국제보험감독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에 따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수립, ② 중국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 ③ 중국 보험시장의 특성 반영이라는 C-ROSS의 세 가지 설계 원칙을 제시함.

■ C-ROSS는 중국 전역의 모든 보험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지급여력제도임.

- 2011년 IMF는 제1세대 EU식 지급여력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한 바 있고 감독자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 CIRC는 C-ROSS의 적용 범위를 중국 전역의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일감독체계(single supervision)를 유지함으로써 제한적인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적 차이에 따르는 감독재량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C-ROSS는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 보험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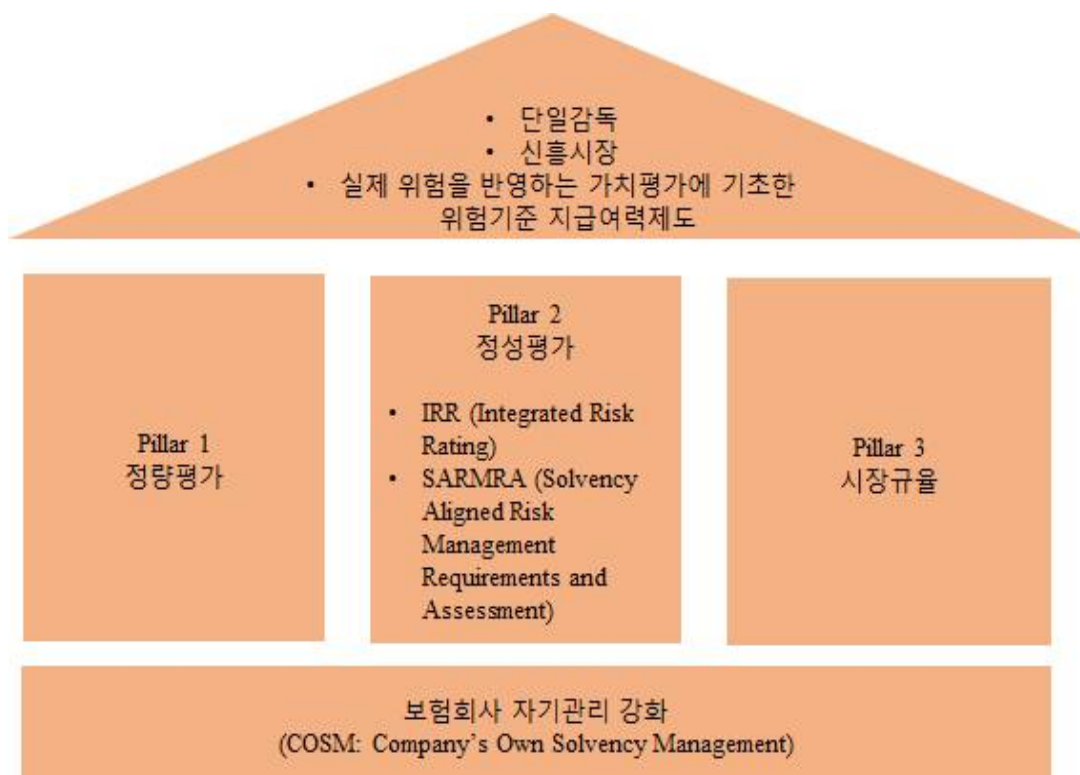
- 세계 4위의 보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침투율은 3.0%, 보험밀도는 1인당 201달러(USD)에 불과하고 제한적인 상품으로 구성되어 선진보험시장과 큰 격차를 보임.⁸⁾
 - 생명보험의 70%는 5년 만기 일시납 저축성상품, 손해보험의 70%는 자동차보험임.⁹⁾
- 위험보장 욕구가 높아진 중산층 등장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성장률이 매우 높아 보험료 성장을 자본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8) 선진시장의 경우 보험침투율 5~10%, 보험밀도 3000~6000달러(USD) 수준임. SwissRe(2014) 전제서.

9) JP Morgan(2013), "China Insurance", Asia-Pacific Equity Research.

- 이에 따라 CIRC는 보험회사가 자본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C-ROSS를 추진한다는 신흥시장 원칙을 제시
 - 다만, 보험료나 자산, 영업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형사일수록 정성평가를 엄격하게 적용

〈그림 2〉 3-pillar 구조의 제2세대 지급여력제도 C-ROSS



자료: Yulong, Z.(2014), "China's C-ROSS: A New Solvency System Down the Road", The Actuary Magazine, 11(1), Society of Actu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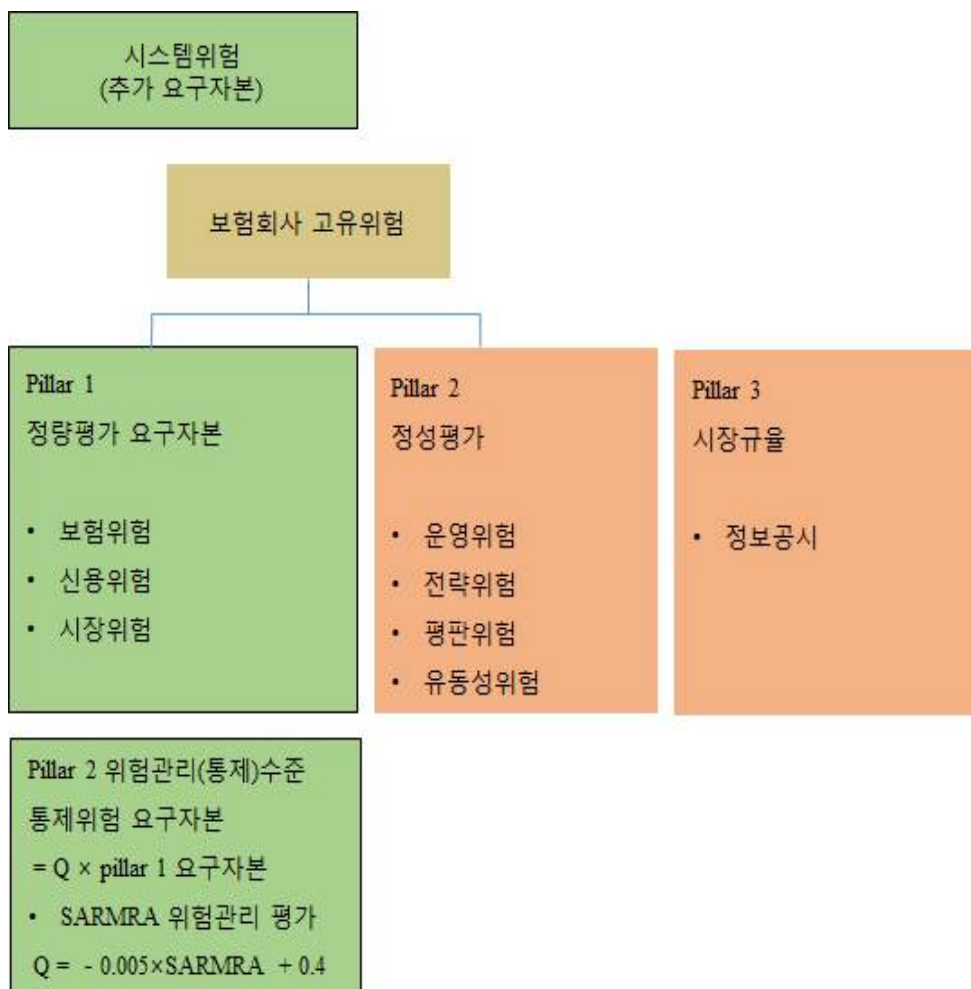
나. 분산효과와 위험관리수준을 반영한 지급여력비율

■ C-ROSS는 위험 간 분산효과와 위험관리수준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산출함.

- 계량화가 가능한 위험(보험, 시장, 신용위험)만을 평가하여 최소요구자본을 산출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운영, 전략, 평판, 유동성위험)은 Pillar 2의 정성평가 대상으로 함.
 - Pillar 1의 계량화가 가능한 위험의 요구자본 산출에서는 위험 간 분산효과를 반영함.
 - 계량화가 어려운 운영위험 등은 Pillar 1의 요구자본 산출에서 배제

- 또한 보험회사가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통제위험)을 Pillar 2의 위험관리평가(SARMRA)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반영함.
 - C-ROSS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관리 측면에서 위험통제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요구자본을 보험회사에 요구함.
 - 이는 보험료나 요구자본의 일정 비율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다른 지급여력제도와 외형상으로 유사하나, 위험관리 평가와 연계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이가 있음.

〈그림 3〉 C-ROSS의 평가대상 위험과 요구자본 산출



주: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요구자본 산출 대상인 정량평가, 통제위험, 시스템위험임.
 자료: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2014), "The Future of China's Insurance Regulation".

- C-ROSS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가용자본이 Pillar 1 최소요구자본과 Pillar 2 SARMRA 통제위험 최소요구자본을 합한 총계보다 많아야 지급여력이 있다고 평가
 - 이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로 지정된 경우 요구자본에 5%를 추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함.

- C-ROSS는 중소형 보험회사에는 지급여력비율 충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대형 보험회사에는 C-ROSS의 전면 수용을 장려하고 있으나¹⁰⁾ 복잡한 내부모형을 장려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음.
 - C-ROSS에서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함.
 - 이는 보험회사가 자본 및 위험관리에 관한 C-ROSS 요구수준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
 - 특히, C-ROSS가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위험관리조직과 지배구조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임.
 - 그동안 중국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조직은 법규준수 및 보고 기능에 한정되었음.
 - C-ROSS는 모든 보험회사에 CIRC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위험관리담당임원(CRO) 설치를 의무화함.
 - 또한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공식적인 위험관리기능, 내부감사 설치가 요구됨.
 - 그러나 C-ROSS는 보험회사에 내부모형을 장려하거나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

- C-ROSS의 감독당국이 지급여력비율 결과에 따라 감독조치하거나 Pillar 2의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과 지급여력비율을 통합한 IRR 등급평가에 따라서 감독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재량을 줄이고 보험회사 부실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첫째, Pillar 1 계량위험과 Pillar 2 통제위험을 대상으로 한 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회사는 신규영업 중지, 배당제한, 구조조정 및 퇴출 등의 감독조치를 받게 됨.
 - 둘째, Pillar 2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의 평가까지 통합한 IRR 등급에 따른 감독조치는 시장진입, 상품 및 자산운용, 현장검사에 대해 IRR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
 - Pillar 2의 계량화가 어려운 위험의 평가는 미미, 주의, 중대, 심각으로 정성평가
 - 지급여력비율 충족 정도와 정성평가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를 A~D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감독

10) Oliver Wyman(2014), "C-ROSS: Preparation for Solvency II with Chinese Characteristic".

4. C-ROSS의 영향과 전망



- C-ROSS의 도입으로 중국 보험시장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를 갖추면서도 자국 경제와 보험시장의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임.
 - CIRC는 빠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감독자원을 포함한 보험산업의 인프라 부족으로 C-ROSS가 정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C-ROSS가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혁을 진행한다고 천명한 만큼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이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점과 인수합병과 가격규제 완화 등 다양한 보험시장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은 활발한 구조조정과 함께 상품 및 자산구성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중소형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및 자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진입 규제 완화와 더불어 활발한 구조조정을 예상할 수 있음.
 - 대형 보험회사는 분산효과와 위험관리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전업사나 중소형사는 자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임.
 - EU식 지급여력제도에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 보험산업에서도 보장성상품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보험시장은 가격규제 등으로 인한 보험영업의 취약한 수익성을 고위험 투자수익으로 보전하는 상황이어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반영으로 안전자산 비중이 늘어날 것임.
 - 현재의 저축성 위주 상품구성은 C-ROSS로 전환 시 요구자본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가격규제 완화와 더불어 보험료 산출과 언더라이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C-ROSS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보험회사의 해외재보험 활용을 억제할 것이라는 것임.
 - 자연재해위험이 추가되는 등 보험회사의 재보험 활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 해외재보험에 대한 위험계수가 국내재보험 위험계수에 비해 매우 높아서 중국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kiri](#)